

관공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행정 공백 우려

광주 동구청 23명·무안군청 24명 확진...광주·전남 4천명 육박 오미크론 변이 확산...전국 신규확진자 다음주 13만~17만명 예상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이미 방역당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꼽혔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2452명, 전남 1152명 등 3604명이 확진됐다. 동구청에서 직원 23명이 집단 확진됐으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의 한 병원에서 이날도 5명이 발생해 누적 118명을 기록했고, 동구의 한 아동사회복지시설에선 직원 등 15명이 확진됐다. 또 남구와 북구의 요양병원 2곳에서도 각각 2명과 3명이 신규 감염되는 등 요양병원발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선 전날도 2298명이 발생했으며, 광주지검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도 이날 목포 106명,여수 241명,순천 237

명, 나주 63명,광양 121명,담양 33명, 곡성 22명, 구례 1명,고흥 40명, 보성 60명,화순 29명,영암 22명, 무안 93명,함평 4명,영광 7명, 장성 26명,완도 21명, 진도 16명, 신안10명 등이 발생했다.

주요 발생지는 순천 요양병원과 구례 병원, 무안 군청, 완도 서울 야구부 전지훈련 관련 등이다. 특히 무안군청에선 교통과 12명 등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었다. 한 달 전 델타 변이 유행 당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3000~4000명대로 집계됐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거의 배씩 증가하면서 10만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43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758일 만에 가장 많은 수

이다. 종전 최대 기록인 전날 5만7175명의 1.6배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고, 이후 약 한달 반만인 1월 셋째 주(1월 16~22일)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어지면서 우세종이 된 뒤 이후 확진자수는 거의 매주 '더블링' (배로 증가)되고 있다.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유행 규모가 당분간 더 커지면서 내주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17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도 현재 3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염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이달 첫째 주 9.2%에서 둘째 주 11.7% 등으로 올라서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세계한상대회 美서 열려 뉴욕 등 4곳 경합 4월9일 결정

내년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2002년 첫 대회 개최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열린다.

16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근)에 따르면 내년 4월 열릴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신청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미국 내 4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뉴욕, 애틀랜타, 댈러스, 오렌지카운티 등 4곳의 한인상공회의소가 개최를 희망해 유치 작업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신청 도시 4곳을 심사하고 귀국한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각지의 한인상공회의소가 톱풀 맞춰 개최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컨벤션, 숙소 등 대회 개최 조건이 맞는 도시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청 도시 한인사회는 물론 주 상·하원 의원 등 현지 정치인들까지 대회 유치를 나서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단은 오는 4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번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개최지는 이 회의에서 결정한다.

김성근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기자 간담회에서 재단이 주관해온 대회를 앞으로 한상 통합단체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 통합단체를 출범시켜 대회 개최를 주도하도록 하고, 재단은 비용 등 측면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열여섯 대회도 격년으로 해외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올해 제20차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과 울산시가 11월 1~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

“윤석열은 복합쇼핑몰 유치 발언 사과하라” 광주시상인연합회 “서민경제 짓밟고 대기업 손만 잡겠다는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송정매일 시장 유세에서 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발언과 관련, 광주시상인연합회(회장 손중호)가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앞에서 전통시장 말살 정책 발언에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차가운 좌판에 앉아 물건을 팔던 상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진다"며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장 소상공인 앞에서 대자본 대기업의 논리를 들이대며 복합쇼핑몰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전통시장 앞에서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서민 경제를 짓밟고 대기업 자본의 손만 잡겠다는 것"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복합쇼핑몰을 언급한 윤 후보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T)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시설개선에 투자하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알립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일보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내용 : 소외계층 신문구독료 지원
- 기간 : 2022. 3. 1-12. 31(10개월)
- 대상 : 지역내 취약계층 판단 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예산소진 및 배달불가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부수 : 개인 1부
- 접수기간 : 2022년 2월23일(수)까지
- 문의 : 광주일보 업무국 (062) 220-0556

光州日報社

광주시, 장애인·임신부 키트 제공계획 또 무산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이유 정부 공급 통제로 물량 확보 못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지급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행정에 가로막혀 또 무산됐다.

광주시는 "중증 장애인 3만명, 임신부 7500명에 게 1인당 8개씩 키트를 우선 배부하려 했지만,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어렵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민간 물량 30만개를 확보했으나, 정부의 갑작스런 공급 통제로 확보 물량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과 예정에 없던 긴급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허가 없이 키트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일 정부의 조달 계획에 따라 중증 장애인, 임신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25개들이 1상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급

증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이유로 정부의 조달구매가 차단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지난 14일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중증 장애인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8개씩 우선 배포하기로 했으나, 또 다시 계획에 없던 정부의 추가 통제로 따라 배포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하루에도 몇 번 바뀌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 탓에 확보한 진단키트마저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언제 키트를 확보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면서도 "정부 수급 방침 등을 잘 살펴 3월에는 계획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분 부동산
바로처리.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5억원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원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산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텔라블록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면 조정중 20여년생 8층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가지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읍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힐플러스길 건너편 동평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사람을 찾습니다

성: 김해 김씨
女, 67세, 원송이씨
생일: 10월 13일
(시: 오전 11시)
010-5061-2496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디에이치홀딩스(갑)와 주식회사 제이앤와이 에너지(을)는 2022년 02월 16일자 각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과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나 구주 및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17일
"갑" 주식회사 디에이치홀딩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837 (쌍촌동) 대표이사 정다희
"을" 주식회사 제이앤와이 에너지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덕산길 180-20 대표이사 김명희

분실공고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7-5번지 첨단 한 국아메리칸 메트로시티 오피스텔 1개동 B타입 1907호
• 계약자: 윤준혁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프라임월드의 2022년도 제 1차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아래-

- 소집일시: 2022.03.04. 금. 오전10:00
- 소집장소: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법무법인이우스 1층 소회의실
- 주의안건: 채무변제를 위한 자산매각의 건

2022년 2월 17일
(주)프라임월드 대표이사 류연성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통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통 433-1503	• 무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신 광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울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9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동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노방**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